

# 재일조선인 페미니즘을 향하여: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사회운동 기록

김우기

## 1. 머리말

이 글은 현재 일본 간토지역을 중심으로 20~30대 젊은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추진하고 있는 성차별 철폐를 위한 사회운동과 그 운동의 하나로 실시된 ‘재일동포 젠더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현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산하단체인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이하 인권협회)에서 사무국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권협회>는 재일조선인<sup>1</sup> 중에서 변호사, 사법서사, 공인회계사, 사회보험노무사, 행정서사, 사회

---

김우기(金優綺) 도쿄에 있는 조선대학교 외국어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연구원 종합연구과 전과과정, 일본국립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대학원 인간문화창성과학연구과 박사전과과정(젠더사회과학 전공) 졸업,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부터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사무국원 겸 조선대학교 비상근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기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과 기업 ‘위안소’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 논고로는 「北海道における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と企業「慰安所」」(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687号, 2016), 「日本軍「慰安婦」問題と国家責任否定論」(在日本朝鮮人人権協会, 『人権と生活』, 35号, 2012), 「日本政府・政治家が主導する差別扇動 - 朝鮮学校差別問題と日本軍「慰安婦」問題から考える」(アジア女性資料センター, 『わたちの21世紀』, No.78, 2014) 등이 있다.

복지사 등 일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나 재일조선인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 활동가들이 협력하여 재일조선인의 권리 옹호와 생활 향상에 공헌하자는 목적으로 1994년에 결성된 조직이다.<sup>2</sup>

〈인권협회〉의 주된 활동은 인권옹호활동, 상담활동, 연구활동, 출판활동이다. 인권옹호활동은 예를 들면 일본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권리를 지키는 활동이나 재일조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 국적이나 민족을 이유로 한 사회적 차별의 철폐를 위하여 유엔과 같은 국제인권기구도 활용하면서 활동을 벌인다. 상담활동으로는 상속, 국적, 재류자격 등 재일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여러 법률적 문제나 교통사고, 이혼,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 국적이나 신조에 상관없이 모든 재일조선인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연구활동으로는 법률법무, 경제경영, 사회복지, 젠더 등 각종 분야와 관련한 부회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회원들이 모여 학습회를 벌이거나, 재일조선인의 권리와 생활에 관련된 주제로 심포지엄, 강연회, 연구집회 등을 기획, 실시한다. 출판활동으로는 재일조선인의 권리와 생활에 관한 다양한 논고나 활동보고를 실은 『인권과 생활』이라는 잡지를 1년에 두 번 발간하고, 그 외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일본의 법제도에 대해서 해설하는 자료, 리플릿 등을 만들어 재일동포에게 보급하는 활동을 한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재일조선인 여성의 성차별 철폐를 위한 사회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인권협회〉의 부회 중 하나인 ‘성차별철폐부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다. 필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인권협회〉 사무국원으로서 동 부회를 담당하여 그 활동을 기획·실행하고 있다.

1 이 글에서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를 원인으로 하여 일본에 사는 조선반도 출신자와 그 자손들을 가리켜 ‘재일조선인’이란 용어를 쓴다. 같은 의미로 ‘재일동포’, ‘동포’라는 용어도 쓴다.

2 〈인권협회〉 웹사이트 <http://k-jinken.net> 참조.

## 2. <인권협회> 성차별철폐부회의 활동

<인권협회> 성차별철폐부회는 2002년에 만들어졌으며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권협회> 사무국원으로 있는 김정인 씨가 창설했다. 창설 당시 부회 이름은 '동포여성학습회'였으며 그 후 '남녀평등추진부회', '성차별철폐부회'로 그 명칭을 갱신해왔다. 김정인 씨는 동 부회를 시작한 계기에 대하여, 일본 사회에는 소위 '여성운동'이나 '여성정책'이 있어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sup>3</sup>이나 가정폭력방지법<sup>4</sup> 등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법률을 제정해왔는데, 재일동포사회에는 그러한 '여성정책'도 없고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여성운동'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남존여비 풍조가 우리의 최고과제인 '민족성의 계승'이라는 말 속에 묻힌 채 계속 이어져오고" 있으며 "그 속에서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동포사회에 싫증을 내고 있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다.<sup>5</sup>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진행한 첫 학습회 주제는 '중군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심판되었는가: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의의'(강사: 신혜봉,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였다. 그 후는 여성과 가족, 여성과 노동, 여성에 대한 폭력 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매번 그 분야에 정통한 강사를 초빙해서 학습회를 개최해왔다고 한다.

필자가 2010년부터 동 부회 운영을 맡게 된 후, 그때까지 부정기적으로 진행해온 학습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진행한 학습회의 제목과 강사는 "위안부" 문제와 나: 민족과 젠더를 생

3 일본 내각부남녀공동참획국,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http://www.gender.go.jp/about\\_danjo/law/kihon/9906kihonhou.html#anc\\_top](http://www.gender.go.jp/about_danjo/law/kihon/9906kihonhou.html#anc_top)(2015. 12. 17 검색). 동 법률은 '남녀공동참획사회의 형성에 관해서 기본이념을 정하고 나라, 지방공공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남녀공동참획사회의 촉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여 남녀공동참획사회의 형성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4 일본 내각부남녀공동참획국,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http://www.gender.go.jp/e-vaw/law/dv2507pdf/dvhou.pdf>(2015. 12. 17. 검색). 동 법률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 관한 통보, 보호, 자립지원 등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여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하'(전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在日本朝鮮人人権協会, 『人権と生活』 15号, 2002, 68~69쪽.

각하다’(필자), ‘우리학교 역사와 여자 치마 저고리 제복에 대하여’<sup>6</sup>(한동현, 일본영화대학 준교수), ‘여성국제전범법정이라는 사상과 실천: 지금 묻는 성폭력, 민족차별, 식민지주의’(김부자, 도쿄외국어대학 교수), ‘성폭력재판의 문제점’(야타가와 도모에, 도쿄경제대학 등 비상근강사), ‘젠더란 무엇인가’(가이토 가쓰코, 페미니스트세라피 ‘나카마’ 대표), ‘데이트 DV란 무엇인가’(정영혜, 오쓰마여자대학 교수), ‘페미니스트 카운슬링과 만나서’(구유리, 페미니스트 카운슬러), ‘데이트 DV에 대하여: 사랑인가 폭력인가’(엔도 도모코, 전국여성 쉼터넷 소속), ‘젠더란 뭐?’(미야모토 메구미, 페미니스트세라피 ‘나카마’ 소속), “성”의 스테레오 타입을 의심하다’(후지타 히로키, 레인보우액션), ‘나에게 있어서 젠더: 여성학습회에서 남녀평등추진부회, 성차별철폐부회로’(김정인, 인권협회 사무국원)다. 주로 <인권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매회 약 15명의 20대 젊은 재일동포들이 모였고, 2010년 당시는 거의 없었던 남성 참가자도 조금씩 늘었다.

2013년에는 성차별철폐부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공개적인 연속강좌(총 5회)를 진행했다. 동 강좌 제목을 ‘일본의 조선식민지 지배와 젠더’, 주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정했다. 동 강좌는 제1회 “‘위안부’는 “공창”이었어?: 일본, 조선의 공창제도와 그 차이’(송연옥,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 제2회 ‘조선인여성이 속은 것은 왜?: 조선의 교육제도와 젠더’(김부자, 도쿄외국어대학 교수), 제3회 ‘조선인 “위안부”는 어떤 피해를 입었어?: 일본군 “위안부”제도와 조선여성’(니시노 루미코,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 센터 대표), 제4회 ‘기업도 “위안소”를 만들었어?: 홋카이도의 탄광, 광산 “위안소”’(필자), 제5회 ‘탈제국의 페미니즘을 찾아서: 조선여성과 식민지주의’(송연옥)로 구성했다. 이 강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논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학습할 수 있는 마당이 되었다.

2013년은 때마침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시장이 ‘그만큼 총탄이 오가는

6 이 글에서 ‘우리학교’란 일본의 패전,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서의 해방 후 재일조선인들이 일제에게 빼앗긴 우리 말과 글, 역사, 문화 등을 되찾기 위해 일본 각지에 세운 ‘국어강습소’에 뿌리를 갖는, 재일조선인들이 스스로 세운 학교—조선학교—를 가리킨다. 우리학교/조선학교에 관해서는 지구촌동포연대(KIN), 『차별을 딛고 꿈꾸는 아이들 조선학교 이야기』, 선인, 2014를 참조.

중에 정신적으로 흥분된 강자 집단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다'라는 폭언을 한 것이 일본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킨 해였다. 그 영향도 있었는지 동 강좌에는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최대 약 80명이 참가했다.

2013년에 이어서 2014년에도 공개연속강좌를 진행했으며 제목은 '누구나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젠더의 시점에서 보는 동포사회'로 정했다. 동 강좌의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실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우리학교에 다니게 한다. 그러기 위해 남성은 밖에서 일을 잘하고 여성은 가사도 아이 키우기도 일도 잘해낸다. 이것이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본보기가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삶이 훌륭하지요. 그런데 우리 동포사회는 그런 가정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동포사회에서 본보기가 되는 삶을 누리고 있지 않는 동포들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잊어버리고 있진 않은가요?

예를 들면 결혼을 안 한 여성/남성. <아직도 결혼 안 해?>라는 그 말이 불필요한 압력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동성애자의 동포들. '성소수자'는 인구의 3~4%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런 동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동포사회에서 동포들이 떨어져나가고 있다>는 말은 자주 들을 것입니다. 그 원인의 하나를 젠더의 시점에서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동포사회 구축을 위한 힌트를 함께 찾고 싶습니다. 우리 성차별철폐부회는 모든 동포들이 마음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포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올해도 연속강좌를 기획합니다. 많은 동포가 참가해주셔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번의 기초강좌와 한 번의 공개토론을 진행하여 매년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재일동포들이 약 40명씩 모였다. 연속강좌는 제1회를 <남자니까> <여자니까>가 왜 안 돼?: 함께 배우

자 젠더론 입문'(필자), 제2회를 '〈아직도 결혼 안 해?〉〈남자인데 배짱이 없구나〉도 성희롱입니다: 배우자 성희롱'(도쿠나가 교코, 오쓰마여자대학 연구원), 제3회를 '사귀고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야?: 〈싱글단위〉로 생각해보자'(이다 히로유키, 리쓰메이칸대학 비상근강사), 제4회를 '〈남자/여자 친구 있어?〉 그 한마디 괜찮아?: 당신 옆의 성소수자'(구도 하루코, 레인보우액션)로 구성했다. 공개토론 '젠더의 시점에서 보는 동포사회'에서는 30대 제일동포 여성 2명, 20대 제일동포 남성 1명이 토론자로 출연하여 결혼을 안 한 것 때문에 느끼는 사회적인 중압감, 결혼과 출산, 육아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사회적인 여성 역할,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요구해온 남성 역할에 대한 위화감을 각자 경험에 기반하여 이야기했다. 또한 실제 출연은 못했으나 자신을 '성동일성장애'(性同一性障害)로 인식하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적합수술을 했으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자에서 남자로 성을 변경한 제일조선인 성소수자가 쓴 수기도 소개되면서, 어려서부터 느껴온 자신의 성별과 주변에서 요구하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위화감, 갈등, 살기 어려움이 참가자들 간에 공유되었다.

2014년에는 공개연속강좌 진행과 병행해서 '재일동포 젠더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150명의 재일동포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동 설문 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 절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성차별철폐부회는 2014년에 진행한 공개연속강좌 기록과 설문 조사 결과보고를 담은 책을 출판하기 위한 활동으로 2015년을 시작했다. 성차별철폐부회에 적극 참여하는 멤버들의 협력을 받으면서 강좌 내용을 글로 옮기는 작업, 설문 조사 회답내용을 데이터로 입력하는 작업 등을 거쳤고, 필자가 설문 조사 분석과 책의 전반적인 편집을 맡았다. 그리고 같은해 6월 『누구나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성차별철폐부회 연속강좌의 기록 & '재일동포 젠더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보고서』(だれもがいきいきと生きられる社会のために: 性差別撤廃部会連続講座の記録&「在日同胞のジェンダー意識に関するアンケート」結果報告書)를 출판했다. 이 책은 2015년 12월 현재 약 500부가 판매되었고 전국에 있는 조선학교 고급부(고등학교에 해당) 도서관에 기증하

였으며, 일본 국회도서관, 국립여성교육회관, 지방자치체가 운영하는 일부 남녀공동참회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성차별철폐부회가 2015년에 벌인 또 하나의 주된 활동은 일본 국회 앞에서 벌인 시위행동 ‘일본군성노예제 부정을 용서치 않는 4.23액션: 배봉기 할머니를 기억하며’(이하 4.23액션)였다. 위에서 언급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나 아베 신조 수상을 비롯하여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 정치가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위를 진행했다.

올해는 조선이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이 되어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현재 일본 정부에 의한 ‘고등학교 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 제외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선학교 교육보조금 정지, 민간 수준에서 벌어지는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 문제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특히 조선인을 표적으로 한 배외주의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외주의의 움직임은 조선에 대한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를 비롯한 일본의 가해책임을 무시, 부정, 정당화하려는 역사왜곡의 문제가 근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일본의 반인도적 국가범죄 그 자체를 부정하는 담론이 아베 수상을 비롯하여 일본 정치가, 미디어, 배외주의자들에 의해 전전되고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부장제나 냉전구조 속에서 아직 대부분 여성들이 일본군 성노예제의 피해를 공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시대에 『조선신보』상에서 자신의 피해를 고발한 첫 조선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봉기 할머니입니다. 배봉기 할머니는 일본의 조선식민지 지배와 성노예제, 오키나와전쟁, 미국의 오키나와 점령 등 상상을 초월하는 차별과 폭력 속에서 살아남고 쇼와 천황의 사죄와 조선반도의 통일을 바라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명백한 일본의 국가범죄를 부정하는 담론이 피해여성들에 대한 여러 차례의 가해행위이며 조선민족 한 명 한 명의 존엄마저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배봉기 할머니가 자신의 피해를 처음으로 상세

하게 증언하신 날인 4월 23일을 기념하고, 위와 같은 역사부정을 절대로 용서  
치 않는다는 분노의 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

일본의 배외주의와 역사왜곡에 반대하는, 한 명이라도 많은 분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합니다.<sup>7</sup>

위 글에 있는 것처럼 배봉기 할머니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1977년 4월 23일 자 지면상에서 자신이 일본군에게 강요받은  
피해를 상세하게 증언했다. 필자는 배봉기 할머니가 자신의 피해를 고발한  
후 1991년에 서거할 때까지 어떻게 지냈는지를 김현옥 씨(전 재일본조선인총  
련합회 오키나와현본부 활동가)를 인터뷰할 때까지 거의 몰랐다. 그런데 인터뷰  
를 통해서 배봉기 할머니가 1989년 쇼와 천황이 죽었을 때 ‘사죄조차 안 한  
채 왜 죽었어’(謝りもせんと逝きよって)라는 말을 했다는 것, 고향인 충청남도  
로 돌아가고 싶지만 오키나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고향에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 조선반도의 통  
일을 진심으로 바랐다는 것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sup>8</sup> 지금이야말로 우리  
재일조선인들이 배봉기 할머니의 삶을 기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4.23액  
션을 기획하게 되었다.

재일동포 대학생을 중심으로 10~50대 재일동포 80명이 모인 4.23액션  
에서는 생전의 배봉기 할머니와 교류가 있었던 이토카즈 게이코 일본 국회  
의원도 참여해서 연대인사를 하였고 김현옥 씨와 윤미향 씨(한국정신대문제대  
책협의회 상임대표)도 문서로 연대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4.23액션의 주된 내  
용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증언낭독이었다. 배봉기 할머니, 박영심  
할머니, 리계월 할머니, 김학순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송신도 할머니 여섯  
분의 증언을 성차별철폐부회 중심멤버들이 낭독하고, ‘더 이상 할머니들의  
존엄을 공격하지 마라!’, ‘공식사죄, 법적배상!’ 등의 구호를 우리말과 일본

7 「일본군성노예제 부정을 용서치 않는 4.23액션: 배봉기 할머니를 기억하며」 진단 안내문.

8 「インタビュー・金賢玉さんに聞く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と統一への思いを胸に: 妻奉奇ハルモニと過ごした17年間を振り返る」, 在日本朝鮮人々権協会, 『人権と生活』 35号, 2012, 36~45쪽 참조.

말로 외쳤다.<sup>9</sup> 이 액션을 취재한 『한겨레신문』 기자가 4.23액션을 통해 배봉기 할머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같은해 8월에는 『한겨레신문』에 「우리가 잊어버린 위안부 최초의 증언자… 그 이름, 배봉기: 오키나와 작은 섬에서 찾은 쓸쓸한 흔적」이란 제목으로 배봉기 할머니 생애가 특집으로 실렸다.<sup>10</sup>

### 3. ‘재일동포 젠더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의 내용과 결과

이 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재일동포 젠더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의 내용과 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sup>11</sup>

본 조사는 2014년 3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신을 재일조선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성차별철폐부회가 진행한 강좌에 참가한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성차별철폐부회 멤버들의 주변 동포들이나 인권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회수한 150부 중 131부는 지면으로, 19부는 데이터로 회수했다.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인적사항(연령, 성별, 직업, 학력, 출신학교, 형제자매 구성과 본인의 위치, 재일조선인 몇 세인가, 고향), 젠더의식(여성/남성다움, 성희롱, 가정폭력, 성소수자, 가정, 결혼, 육아, 이혼, 일), 동포사회와 관련한 젠더평등 의식, 젠더규범 의식, 실제 경험한 성차별, 사회에서 성차별을 없애고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 등에 관하여 62개 항의 설문을 진

9 이 액션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며(제작자, 「4.23액션」, <https://www.youtube.com/watch?v=GcL1knZDzhY>) 동 액션에 참가한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감상이나 심정에 관해서는 李イスル, 「「자매(姉妹)たちへの思い: 〈日本軍性奴隷制の否定を許さない四.二三アクション〜妻奉奇ハルモニを記憶して〜〉を終えて」, 在日本朝鮮人人権協会, 『人権と生活』 40号, 2015, 64~65쪽; 「対談 土井敏邦×金優綺 “記憶”と生きる: 日本軍性奴隷制サバイバーと在日朝鮮人」, 在日本朝鮮人人権協会, 『人権と生活』 41号, 2015, 30~39쪽 참조.

10 『한겨레신문』, 2015. 8. 8.

11 이하 在日本朝鮮人人権協会 性差別撤廃部会 編集・発行, 『だれもがいきいきと生きられる社会のために: 性差別撤廃部会連続講座の記録&「在日同胞のジェンダー意識に関するアンケート」結果報告書』, 2015, 90~201쪽 참조.

행했다.

조사 회수 결과 응답자 150명 중 90%가 10~30대 젊은 세대였다. 제일 조선인 3세가 74%, 4세가 13%로 합치면 약 90%를 차지한 것은 본 조사에서 드러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 77명, 남성 72명으로 거의 같은 비율이었고,<sup>12</sup> 직업으로 보면 일하는 사람이 76%(전업주부, 가내노동도 포함), 학생이 23%였다. 응답자 중 75~87%는 일시적으로라도 조선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으며,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응답자도 65%나 되었다. 따라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조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도 본 조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 여성 응답자와 남성 응답자의 젠더규범 의식, 성별 역할분업 인식의 차이  
본 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설문항목에 관해서 전체적인 응답결과와 여성/남성별로 나눈 응답결과를 분리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응답결과만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여성 응답자와 남성 응답자의 젠더의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하 남녀 응답자의 젠더의식의 차이가 나타난 응답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본 조사 중 “여성/남성답게” 있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성/남성답게’ 있고 싶다고 대답한 비율이 50%를 넘었고, 여성 응답자는 42%, 남성 응답자는 64%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육아와 관련한 설문에는 여성 응답자의 과반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대답(41%)이 가장 많았다.<sup>13</sup>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아들과 딸은 기대되는 역할이 다른 것이 당연

12 본 조사 성별 설문에서는 여성, 남성 외에 ‘기타’란 선택지도 만들었으나 이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무응답자가 1명 있었다.

13 설문에 대한 회답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럭저럭 그렇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다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의 5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무회답도 약간 있었다. 이 글에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완전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럭저럭 그렇다고 생각한다’를 더한 수를 의미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하다'라는 설문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과반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으나 남성 응답자 중 가장 많았던 응답은 '그렇게 생각한다'(41%)였다. 이러한 응답 경향을 보면 '여성답게' '남성답게' 있어야 한다는 젠더 규범 의식이 여성 응답자보다 남성 응답자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 역할분업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면, '여성이 있어야 되는 곳은 가정이며 남성이 있어야 되는 곳은 직장이다'에 대한 회답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72%)였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10% 미만이었다. 전체적으로 다수가 성별 역할분업을 부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중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여성 응답자는 거의 없었으나 남성 응답자는 10%를 조금 넘었고, 반면에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여성 응답자는 60%를 넘었으나 남성 응답자는 40%에 머물렀다.

결혼과 일에 관한 설문인 '여성은 결혼을 해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여성 응답자는 60%를 넘었으나 남성 응답자는 40%였다. 반면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답한 여성은 34%, 남성은 51%로, 여성이 결혼을 해서 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여성보다 남성이 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여성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에 대한 설문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여성은 10% 미만이었으나 남성은 약 30%였다. 같은 설문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여성은 60%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남성은 40%였다.

'남성이 전업주부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설문에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여성은 10% 미만이었으나 남성은 30%에 가까웠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여성은 약 80%, 남성은 60%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본 조사의 남성 응답자의 성별 역할분업 비판의식이 여성 응답자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를 더한 수를 의미한다.

## 2) 성희롱, 가정폭력 등 성폭력의 경험과 인식

본 조사에서는 성폭력의 문제와 관련해 성희롱과 가정폭력에 관한 설문을 만들었다. 또한 성희롱이나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험을 임의로 기입하는 란도 만들었는데, 그러한 피해 경험을 적은 여성 응답자는 21명, 남성 응답자는 5명이다. 그 외 가정폭력의 가해 경험을 적은 남성 응답자, 아버지로 부터 어머니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를 기입한 응답자도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언행을 선택하는 설문을 만들었는데 설문에서 제시한 13가지 언행 중 여성, 남성 모두 약 80~90%의 응답자가 선택한 것은 ‘불필요하게 몸을 만진다’, ‘외설스러운 사진, 동영상 일부러 보여준다’, ‘사진을 마구 찍거나 얼굴이나 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한다’, ‘성적인 조롱, 저속한 농담을 한다’, ‘메일이나 전화로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였다. 다음으로 약 50%의 여성, 남성 응답자가 선택한 것은 “여성에게는 일을 맡기지 못한다”, “남자인데 배짱이 없다” 등의 발언을 한다,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다’, ‘외모에 대해서 마구 헐뜯는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한다(애인 있어? 아직 결혼 안 해? 등)’였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응답 비율이 50% 미만인 선택지는 ‘남성,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을 분담한다(남성은 육체노동, 여성은 차를 꿇인다 등)’, ‘개인의 언행, 머리 모양, 복장 등을 보고 “남성답지 않다”, “여성답지 않다”라고 말한다’, ‘용모에 대해서 함부로 칭찬한다’, ‘아가씨(女の子·お嬢さん), 아저씨, 아주머니, 사나이(僕·坊や) 등의 호칭을 쓴다’였다. 이러한 응답자들의 응답 경향을 보면 ‘남성은 육체노동/여성은 차를 꿇인다’ 등의 성별 역할, 여성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 용모에 대한 비평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젠더규범에 기초한 언행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그 외 형태의 성희롱 인식(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몸을 만진다 등)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언행에 관한 설문도 만들었는데 선택지로서 제시한 14가지 언행 중 여성, 남성 모두 90% 넘게 선택한 것이 ‘화를 내고 파트너를 때린다, 찬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물

건을 던지고 파트너를 겁준다'였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에 비해서 성적 폭력("나를 좋아한다면 좋잖아" 등의 말을 해서 파트너가 싫어해도 몸을 만지거나 키스, 섹스 등 성행위를 요구한다)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적었다(여성 응답자 90%, 남성 응답자 74%). 또한 정신적 폭력이나 경제적 폭력("너는 못된 사람이구나", "너의 그런 면이 별로야" 등의 말로 파트너를 부정하고 파트너의 자신감을 빼앗는다'(여성 응답자 68%, 남성 응답자 51%), "돈 조금만 빌려줘" 등의 말을 해놓고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여성 응답자 44%, 남성 응답자 39%) 등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적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비율보다 낮았다. ① 신체적 폭력, ② 성적 폭력, ③ 정신적 폭력, ④ 경제적 폭력 순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희롱과 가정폭력에 대한 회답비율을 성별로 분석하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선택지를 선택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성희롱에 관해서는 13가지 선택지 중 같은 응답 비율이었던 선택지를 제외한 12가지 선택지를 선택한 비율은 여성이 더 높았고, 응답자가 고른 선택지 수를 평균과 비교하면 여성은 한 명당 평균 8.3개의 선택지를 골랐으며 남성은 한 명당 7.3개의 선택지를 골랐다.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14가지 선택지 중 같은 응답 비율이었던 선택지를 제외한 13가지 선택지를 선택한 비율은 여성이 더 높았다. 응답자가 고른 선택지 수를 평균과 비교하면 여성은 한 명당 평균 9개의 선택지를 골랐고, 남성은 한 명당 평균 7.5개의 선택지를 골랐다.

이 결과로부터 본 조사의 응답자 중에서는 성희롱, 가정폭력과 같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본 조사에서는 성소수자와 관련한 말의 뜻이나 이미지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 결과 알 수 있었던 것은 ① 레즈비언, 게이, ② 바이섹슈얼, ③ 트랜스젠더, ④ 인터섹스, 어섹슈얼, 논섹슈얼, 폴리아모리의 순으로 응답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

얼, 트랜스젠더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그 외 성소수자 관련 용어보다 높았는데 그 배경에는 최근 일본 미디어가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머리글자)라는 말을 성소수자를 설명할 때 쓰고 있는 영향이 있다고 추측된다.

또한 ‘성소수자의 이미지’에 대한 자유응답 중 ‘자신도 (민족적) 소수자이니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있다’, ‘LGBT에게 있어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자신의 출신(내셔널리티)과 비슷한 점이 있는 느낌을 받는다. 혹 그렇다면 성소수자를 부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재일동포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있다면 커밍아웃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 재일조선인으로 사는 어려움을 성소수자로서 사는 어려움과 연결시킨 의견이 약간 있었던 것도 본 조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 중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시사하는 기술(‘자신은 소위 성소수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몇 명에게밖에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다.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과 특별히 어디가 다르다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 바이섹슈얼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밥맛이라는 말을 들었다’)이나 친구 중에 성소수자가 있다고 쓴 응답도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재일조선인 중에도 성소수자가 있다는 것을 본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4) 재일동포사회와 관련한 인식

본 조사에서는 ‘동포사회에서 젠더규범(여성이라면 여성다워야 한다, 남성이라면 남성다워야 한다라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 역할 등을 가리킨다)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을 만들었다. 전체 응답자 중 70%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중 여성은 84%, 남성은 54%로, 재일동포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한 젠더규범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젠더규범을 느끼는가라는 설문의 자유기입란에는 60% 이상이 응답했다. 응답 중 여성에게 강요되는 젠더규범에 관해서는 ‘결혼, 출산, 육아, 개호나 요리, 가사를 잘하는 것이 당연하다’, ‘남편 혹은

남성을 지지해야 한다’, ‘앞으로 나서는 안 된다/의견을 말하면 시끄럽다고 여긴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남성에 관해서는 ‘일가의 대들보로서 돈을 벌어야 한다’, ‘위에 서는 게 당연하다’, ‘강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재일동포사회에서의 젠더규범 요구는 ‘혹 당신이 결혼을 안 한 30대 이상이라면 동포들이 모이는 이벤트 등에는 참가하기 쉬운 분위기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현저히 나타났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약 40%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46%, 남성은 36%였다. 반면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여성은 10%, 남성은 23%였다. 응답의 이유(‘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이유도 포함)로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결혼해서 가족을 꾸려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30대 이상이라면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젠더규범이 남성보다도 여성에게 강하게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성차별에 대해서 임의로 기입하는 란도 만들었는데 이에 관한 응답 비율은 약 40%였다. 이 중 여성이 약 60%, 남성은 약 40%였다. 성차별을 하는 측에 선 경험에 대한 기입(‘친구로부터 폴리아모리라는 고백을 받았을 때 솔직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자기 자신이 성차별을 하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했다’)나 어머니가 받은 성차별이나 성폭력에 대한 기입(‘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가정폭력’ 등)도 약간 있었다.

성차별의 경험은 한 명 한 명 다 다르므로 분류하기가 어려우나 응답 중에서 많았던 내용은 ‘여성인가 남성인가에 따라서 일이나 역할에서 차이가 난다(여성은 작은 일이나 식사 준비, 남성은 육체노동 등)’, ‘중요한 역할은 남성이 맡고 여성은 중책을 맡지 못한다’라는 것이었다.

##### 5) 성차별을 없애고 누구나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 조사에서는 또한 ‘성차별을 없애고 누구나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을 만들었다.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약 70%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았던 내용은 계발(啓發), 교육, 개인의 의식에 관한 것이었고 그 속에서도 특히 많았던 내용은 ‘성차별이나 젠더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주지, 계발, 선전하는 것’, ‘서로 존중하는 것’, ‘교육의 근본적 변화’였다. 젠더 시점에서의 교과서 작성 등 구체적인 의견도 있었다.

기타 응답에는 ‘젠더규범이나 성별 역할을 없애나간다’, ‘의사결정기관에 여성을 더 많이 등용하고 남녀비율을 평등하게 한다’,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꾼다’, ‘남성의 장시간노동의 변화, 육아휴가의 취득’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 또 “어머니의 애정에서 나타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인식한다’와 같은, 여성에게 강요되는 재생산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찾는 의견도 있었다.

#### 4. 맺는말

이 글은 현재 20~30대 젊은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인권협회> 성차별철폐부회가 벌여온 활동과 ‘재일동포 젠더 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의 내용과 그 결과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동 부회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활동 외에도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모여서 평소 안고 있는 고민이나 재일조선인 여성끼리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마음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마당 ‘보금자리 ver.1’을 2011년부터 부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여성의 삶과 관련있는 주제를 정해 워크숍이나 영화감상을 하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재일조선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공유하고, 연대감을 높이는 자리가 되고 있다. 또 이러한 연대감이 대학원생, 교직원, 회사원, 기자, 주부, 활동가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재일조선인 여성들 자신이 주체가 되어 단결하면서 성차별철폐부회 활동을 벌여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 부회에서는 2015년 12월에 ‘자신을 재일조선인이며 성소수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교류 마당’으로서 ‘보금자리 ver.2’를 처음으로 개

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sup>14</sup> 등 SNS를 통해서 안내한 결과 3명이 참가를 했다. 참가자는 ‘이런 마당이 차려진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쁘다’, ‘자신 이외의 재일조선인 성소수자를 오늘 처음으로 만났다’라는 감상을 말하였고 또한 이성애중심주의적인 일본사회, 재일조선인사회의 양쪽에서 느껴온 소외감이나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다. 재일조선인이면서 성소수자라는 것은, 일본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민족차별이나 식민지주의에 더해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복합적인 억압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차별 철폐부회는 민족차별과 성차별 양쪽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앞으로 도 ‘보금자리 ver.2’를 계속 개최해나갈 예정이다.

성차별철폐부회에 참가하는 멤버들은 이제까지 여러 학습과 활동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으로서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민족차별), 여성으로서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성차별), 성소수자로서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빈곤화되는 문제(계급차별) 등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넓혀왔다. 그 과정에서, 비록 재일조선인사회 속에서 가부장적인 풍조나 성차별이 짙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의 계속되는 식민지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 즉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해방 이후에도 생존권, 재류권, 민족교육권 등 재일조선인으로서 살아나가기 위한 제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 항상 최우선이고 필요불가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일조선인들끼리 단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남성들이 힘을 가지고 주도하는 가부장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만큼 이제라도 재일조선인 여성이나 재일조선인 성소수자 등 재일조선인 중에서도 어둠 속에 묻혀온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식민지주의나 가부장제의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다시 인식하며, 일본의 식민지

14 <인권협회> 성차별철폐부회 트위터 어카운트는 @HURAK\_SCCP, 페이스북 페이지는 <https://www.facebook.com/HURAK.SCCP/>.

주의에 대한 저항운동의 일환으로 재일조선인들 자신에 의한 가부장제 극복, 성차별철폐를 향한 운동: '재일조선인 페미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갖게 되었다.

동 부회가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위와 같은 인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민족단체의 여성운동이나 그 외 재일조선인 여성들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과 같은 전례로부터 많은 자극을 얻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고무되어왔기 때문이다.<sup>15</sup>

앞으로 <인권협회> 성차별철폐부회는 성별역할분업을 거부하고, 민족 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등을 복합적인 차별구조로 생각하고, 그 구조 자체를 바꾸어나가는 사회운동을 추진하려 한다. '재일조선인 페미니즘'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의미로 '누구나가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꾸려나가는 과정이라 여기고,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

15 金伊佐子, 「在日女性と解放運動」(解題 皇甫康子), 『季刊 前夜』4, 2005(フェミローグの会, 『フェミローグ』, 1992), 117~126쪽; 宋連玉, 「在日」女性の戦後史, 『環』11, 2002, 166~177쪽; 金富子, 「在日朝鮮人女性と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運動 一九九〇年代のヨソネットの運動経験から」, 『継続する植民地主義とジェンダー』, 世織書房, 2011, 195~209쪽 등 참조.